

로저 그린 박사,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 강의 4, 마틴 루터에서 존 칼빈까지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 분은 로저 그린 박사가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를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에서 존 칼빈까지를 다룬 4번째 세션(3번째 세션은 누락됨)입니다.

사실, 금요일에는 무언가를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것에서 나온 일종의 경건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금요일이나 수요일에 식당에 있다면 금요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일종의 경건한 생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인데, 519쪽을 읽어볼 거예요. 강의에서 언급할 테니, 그래서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할 뿐이니라.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아들 도 마찬가지로 한다. 아버지께서 아들 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그에게 보여 주신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여 주셔서 너희가 놀라도록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것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살리시느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 에게 주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된다면 강의 요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의 1, 중세 로마 가톨릭교와 정당화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퍼즐을 네 부분으로 모두 함께 본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중세 세계의 로마 가톨릭교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교와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면죄부 이야기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면죄부 이야기의 끝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기시켜드리자면, 우리는 교황 레오 10세가 얼마나 나쁜지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고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이 되었을 때, 그는 필요했고, 그는, 그런데,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언급했듯이 사제직을 통해 승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황이 되었을 때, 교황청의 재정은 난잡한 파티와 그의 호사스러운 생활과 모든 것으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하고 성 베드로 대성당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과 유럽 전역에 면죄부 판매인을 파견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전면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이제 테첼 수도사는 비텐베르크에 도착하고, 불쌍한 테첼 수도사는 비텐베르크에서 가르치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분노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고, 그런 다음 종교 개혁이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개요에서 E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의 사진이 있는데, 그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논제를 못 박고 있고, 논제 번호는, 뭐, 논제 번호는 86번입니다.

아, 그런데 95개 논제는 실제로 면죄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6번째 논제: 교황의 부는 오늘날 가장 부유한 백만장자의 부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난한 신자들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하나만 지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교회 문에 못 박고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걸까요? 교회 역사에서 이 사건이 잘못 해석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종종, 아마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종교 개혁 주일에 용감한 마틴 루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건 항의 행위입니다.

그는 여기서 항의하고, 그는 문에 논제를 못 박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글쎄요, 정확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좋은 이야기지만, 그 뒤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는 일은 중세 세계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는 신학 교수이고,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일이고,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신학 문제를 논쟁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신학 교사가 어떤 논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면, 그는 그것을 교회 문에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은 대학의 게시판과 같았고, 대학은 교회 옆에 있는 교회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스린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항의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는 훌륭한 로마 가톨릭 신자이지만 신학 교사이고, 이것을 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95개 논제를 게시하고 이 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신학을 배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항의 행위가 아닙니다.

라틴어가 대학의 언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쓰여졌을 것이지만, 독일어로 번역되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잘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신학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인쇄기가 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작품은 인쇄되었고, 그러면 교황을 포함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는 이것이 전혀 재밌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죄부에 대한 그의 주장입니다. 좋아요, 이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95개 논제에서 신학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이 교회의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그는 신학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전역에서 면죄부 판매로 돈이 고갈되면 교회, 레오는 자신의 금고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순수한 신학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는 이 논제에서 옳은 것을 옹호하고, 그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 자체를 적절한 맥락에 두고 싶습니다. 좋아요, 95개 논제까지 포함하여 괜찮습니까? 이 모든 면죄부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좋아요, 네, 제시.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옳아요,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루터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그는 자신이 누구를 화나게

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말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한다면, 그는 그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레오 10세라는 인물과 특별히 마찰을 빚을 만한 행동은 없었지만, 교황청은 교황청이 성경적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 전체가 루터에게는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고, 이 언어는 약간 선동적입니다.

그리고 레오 10세가 95개 조항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약간 선동적입니다. 루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학 교사이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밝히고 이에 대해 좋은 토론을 하는 것이 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교황은 사실 그것에 대해 기분 나빠했습니다. 네. 여기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그는 95개 논제를 신학에 근거한 것인가요? 맞아요. 그는 기본적으로 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는 면죄부 제도 전체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퍼즐의 그 조각에 도전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또한 참회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과업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죄의 두 가지 본성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은, 어떤 의미에서 95개 조항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가 이제 폭로되었고,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는 도전이지만, 그는 더 이상 로마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식이에요. 그는 신학자로서 신학자로서의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밝혀내세요.

그것에 대해 논의해 보자. 그러면 아마도 이것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래. 95개 논제를 읽는 건 재밌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읽는 것도 꽤 재밌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것은 도전이에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은 E번, 종교 개혁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퍼즐의 네 조각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땠는지 볼 수 있으니 종교 개혁은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좋아요.

글쎄요,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이 네 가지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첫 번째 것은 우리는 종종 종교 개혁이 믿음에 의한 칭의의 본질을 놓고 벌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종교 개혁의 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중세 로마 가톨릭교와 칭의의 본질이라는 제목에서도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루터와 후대의 칼빈 같은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정당화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것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똑같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확신입니다. 실제로 도전받고 있는 것은 확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사실은 중세 로마 가톨릭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이 신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의 자녀이며 언젠가 죽으면 신과 함께 갈 것이라는 평온한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지은 죄로 인한 모든 형벌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잊었거나 고백하지 않은 대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고, 따라서 어차피 죽자마자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아마도 수천 년 동안 연옥에서 고통을 겪을까봐 항상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기본 문제, 루터와 같은 사람들의 기본 문제는 확신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생과 저승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로서, 기관으로서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에게 그런 확신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이 연옥에서 얼마나 오래 복역할지 말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도 그걸 아십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부분 그들에게 전적인 면죄부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확신의 부족을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번호 E에 따르면, 개혁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개혁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확신의 부족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확신의 부족에 대응할 것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경이 그들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확신을 줄 것인가요? 그리고 그때의 대응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문제는 확신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좋아요. 첫 번째 대응은 당신이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은 루터의 강의나 설교, 칼빈의 강의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할 종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은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당신을 위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일반적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당신이 구속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에 대한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구절, 요한복음 5장, 특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내용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 그냥 적어 두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을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절은 이 위대한 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36, 요한일서 1:7. 좋아요, 그게 하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특히 24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더 긴 구절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좋아요, 그게 하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가 이에 대해 쓴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반응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신실함으로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로 구원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구속의 일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그 선행은 당신의 구속의 표시이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선행이 당신을 그의 손안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재생하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의 일반적인 제목은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

그래서 그들은 성도의 견인을 설교합니다. 루터와 칼빈은 성도의 견인을 설교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견인 아래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데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고, 그의 손가락 끝을 느끼고,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인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성도의 인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는 자들을 붙잡아 두신 인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품에 안고, 그는 우리를 그의 품에 안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응한 두 번째 방식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28, 29입니다.

그냥 적어두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28과 29. 세 번째,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세 번째 방법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속받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속받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원했고,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죄를 지었고 항상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좋아요, 네 번째, 네 번째 길. 이게 네 번째 길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루터가 다시 설교단에서 이것을 외치는 것을 들을 수 있지만,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 등이 이것을 설교할 때,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연옥이란 것이 없다고 확신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지금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친척 중 누구도 연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제 친구 중 누구도 연옥에 있지 않습니다.

연옥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설교단과 글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자, 이것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연옥은 없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확신의 부족과 모든 것에 대응하는 다섯 번째 방법, 즉 정당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의 은혜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은혜의 표시이지만,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아온 종류의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었고,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이 확신의 메시지를 듣고 유럽 전역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중세 로마 가톨릭 신자로 평생 살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책에서 한 단락만 읽고,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싶은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개혁자들이 어떻게 나타나서 그들을 해방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싶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단락만 읽을 수 있다면요. 종교 개혁에서 후기 중세 교회의 특정 학대와 특정 타락 사례에 대한 반발만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르네상스 교황의 궁정에서 부패가 아무리 심했고, 면죄부, 유물 등을 증식시켜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무리 끔찍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자체로는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타락과 관련하여, 여기에는 무시할 수 있는 많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미신, 면죄부 제도, 순례,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 스콜라주의 신학과 중세 교회 전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확신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전투가 확신의 전투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확신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확실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에서만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특별한

게시를 구하는 것조차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가톨릭 교회의 성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대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용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이나 실천에는 교회에서 인정하는 평범한 기독교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신 모든 급진적인 신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의롭게 됨은 부분적으로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의로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을 위해서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루터 시대에는 자신의 죄악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만 했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을 얻기에는 너무 오래 걸렸다면 주제넘은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목표는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것이 종교 개혁의 모든 것이었고,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강의 1,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와 칭의의 본질. 여기에 있는 게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자들에게 왜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이해해? 그들이 이런 확신에 대한 반응과 모든 것을 이해해? 하지만, 뭐, 이런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구? 질문 있어? 토론? 우리가 강의한 내용 중에 확신이 없는 게 있어? 우리가 강의한 내용과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알아? 다들 괜찮게 생각해? 알았어. 알았어.

네. 보증의 모든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증의 모든 기본 사업은 무엇인가요? 좋아요. 글썄요,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이 당신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 확신, 당신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29절, 요한복음 5: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요한은 당신이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죽음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영생에서 완전히 영생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 다른 게 있나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존으로 넘어가죠. 존 칼빈. 저는 또한 강의 2, 존 칼빈의 신학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강의 2, 존 칼빈의 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그를 일종의 전기적 형태로 배치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 그가 이론 전반적인 업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의 신학의 특정 측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단지 존 칼빈의 신학을 하는 데 16주가 모두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학에서 골라내서 그의 신학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가 2세대에 종교 개혁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괜찮으세요? 그럼, 우선, 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전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우선, 여기에도 몇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이름과 장소를 몇 개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프랑스의 NOYON에서 태어났습니다. Noyon.

우연히 프랑스어 전공자 있나요? 지금 말해보세요. 이중언어 사용자
있나요? 프랑스어 할 줄 아세요? 좋아요. 그럼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네요.

좋아요. 정말, 정말 흥미롭네요. 이게 제게는 정말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존 칼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그의 가족적 배경과 모든 것 때문에 그는
마틴 루터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존 칼빈은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글을 쓴 학생이자 프랑스 사상가였으며,
단어 선택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즉흥 설교자였으며, 단어
선택에 전혀 신중하지 않았고 매우 산만했습니다. 존 칼빈은 매우
조직적일 것입니다.

루터는 전혀 조직화되지 않을 겁니다. 신이 이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 두
명의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다는 게 제게는 흥미롭습니다. 제
말은, 서로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좋아요. 그럼,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네요. 좋아요.

이제 그는 다양한 대학에 다녔고, 기본적으로 그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언급한 대학 몇 개를 소개합니다. 그가
다녔던 대학 몇 개만 소개합니다. 오를레앙, 부르제, 파리 대학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호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놀랍습니까? 아니요
,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을 볼 때, 칼빈을 읽을 때, 또는 그의
설교를 읽을 때, 그는 변호사처럼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당신에게 기독교에 대한 법적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법학을 공부했고 또한 인본주의도 공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본주의라고 불리는 것들요. 이제, 인본주의는 인본주의였을 텐데,
그것은 실제로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글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와 로마 문학, 철학, 사고방식 등을 갱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법과 인본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자유분방하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자유분방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중세 세계로 돌아갔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와는 다른 세계입니다.

그가 다녔던 대학들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특정 교수와 공부하거나 특정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은 당신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학에 갔다가,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면 다른 대학에 가는 식으로요. 오늘날의 우리 세상과 대학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냥 그랬을 뿐이고, 그가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좋아요, 이제 그의 삶과 관련하여, 그의 삶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파리 대학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장 칼빈에게 일종의 전환점이었던 파리 대학이었습니다. 파리 대학에서 일어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가 대학생으로 파리에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그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무엇을 쓰고 있나요? 그리고 그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래서 그는 마틴 루터를 읽기 시작했고, 그의 글에 매우 매료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1533년에 자신의 언어로 말하자면 일종의 갑작스러운 개종을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1533년.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명목상의 로마 가톨릭 신자였고 특별히 종교적이지는 않았지만, 1533년에 갑작스러운 개종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 께서 제 마음을 복종시키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 문제에 대해 그렇게 젊은이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경해졌습니다. 좋아요, 존 칼빈은 1533년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파리에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루터를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 신자가 되었고, 루터를 읽고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좋아요, 그의 삶과 관련된 또 다른 것이 있고, 그것이 그가 여기에서 가는 곳입니다. 좋아요, 존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와는 다르죠. 루터는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당했지만, 장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좋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매직 마커를 찾았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 저기, 하나 아래에, 오, 여기 어딘가에 매직 마커가 있나요? 좋아요,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 고맙습니다, 선생님. 좋아요, 제가 해야겠어요. 누군가 이걸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해야겠어요.

그럼 더 이상 이걸 할 필요가 없겠네요. 좋아요, 여기 로마 가톨릭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 칼빈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이해가 있습니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신자였고, 그는 교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해야 했던 일은 참된 신자로서 참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적인 이야기는 존 칼빈의 방황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떠났고, 그는 길을 잃었고, 그는 참된 교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칼빈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해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칼빈이 일어난 일에 대해 이해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빈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해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빛나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교회에 머물기 위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 성경적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가톨릭 의견은 빛나갔습니다. 칼빈의 의견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이상 진정한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교회에 머물기 위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여기서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의견 불일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좋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그는 바젤에 도착하고, 여기 이 오버헤드에 있습니다. 그는 바젤에 도착하고, 알다시피, 우리는 칼빈이 간 곳 중 일부를 보고 있고, 왜 거기에 비행기를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그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저 그것이 여행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여행을 나타내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젤에 도착하게 됩니다. 좋아요. 왜 바젤인가요? 글썄요,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종교 개혁이 폭발했을 때, 유럽에는 매우 뚜렷한 로마 가톨릭 지역이 생겼고, 유럽에는 매우 뚜렷한 개혁, 개신교, 개혁 지역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분단선이 있었고, 그래서 바젤은 개혁된 도시였습니다. 바젤은 도시였고, 스위스 바젤은 종교 개혁을 받아들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신교도로서 지금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어딘가로 갈 것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는 바젤로 갈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바젤은 스위스에 있었고, 있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간단히 말해서, 바젤에서, 1536년은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1536년 에 , 장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그의 Inst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의 기독교 종교 강요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636. 좋아요.

이제, 기독교 강요가 시작된 이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종교 개혁 신학에 대한 분명하고도 분명한 방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1536년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 신학을 분명하게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좋아요. 이제, 가능하다면 이전 파워포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패럴이라는 남자와 저는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건 외워야 할 날짜도 아니고, 그저 이 사람들이 살았던 때를 느낄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패럴이라는 남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첫 번째 이름을 이렇게 발음하지만, 윌리엄 패럴이라는 남자입니다. 윌리엄 패럴은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조직했고, 제네바는 스위스에 있었고, 바젤처럼 종교 개혁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패럴은 칼빈을 설득해서 제네바에 합류하게 하고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공고히 하게 합니다. 칼빈의 친구인 패럴과 칼빈이 함께 모이고,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종교 개혁을 공고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말하면, 제네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패럴과 칼빈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개신교 윤리가 따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개신교 신학이 너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개신교적 윤리적 요구는 따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그를 마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방문하고 종교 개혁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패럴에게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패럴과 칼빈은 둘 다 어떤 의미에서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도시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제네바가 일종의 종교 개혁 도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 개혁 원칙을 시민 생활에 주입할 수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 출발. 좋아. 좋아.

이제, 존 칼빈이 떠난 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존 칼빈은 스트라스부르로 갑니다. 존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합니다. 좋아요.

존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몇 가지 이유로 스트라스부르에 갔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스트라스부르가 프랑스어권 도시이자 종교 개혁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에게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종교 개혁이라면, 그가 프랑스어를 하는 것이고, 그는 그것을 도울 수 있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종교 개혁 때문에 평생 그곳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트라스부르로 갔고, 영원히 그곳에 정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그는 Martin Butzer라는 남자를 만났고, 이 사람은 Butzer가 아니라 Bucer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Butzer는 BUTZER인 것 같지만, 그가 Martin Bucer를 만난 곳은 스트라스부르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Martin Butzer는 칼빈이 그의 신학을 형성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버처는 존 칼빈에게 신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서 보낸 시간은 존 칼빈에게 매우, 매우 유익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가 영원히 그곳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글쓰기 측면에서, 그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동안 두 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좋아요, 첫째, 그는 연구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그는 평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첫째, 그는 바젤에서 연구소를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동안 그는 연구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소를 다시 출판하고, 조금 더 채우고, 더 많은 토론을 논의하고, 등등. 좋아요, 그가 하는 두 번째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씁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주석입니다.

그는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로마서가 이해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그는 많은 성경 책에 대한 많은 주석을 쓸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모든 책에 대한 주석을 쓰지는 않지만, 성경 책에 대한 많은 주석을 씁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는 그의 경력을, 어떤 의미에서, 그의 저술과 출판 경력을, 기관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을 위해서도, 정말 향상시켰습니다. 좋아요, 칼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칼빈은 결국 떠나고, 1541년에 제네바로 다시 불러갑니다 .

제네바에서 온 대표단이 칼빈에게 온다. 여기서 그는 스트라스부르에 정착했다. 그들은 칼빈에게 와서,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아마도 우리는 제네바에 당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당신이 제네바에 와서 우리가 성경의 원칙, 종교 개혁의 원칙 등에 따라 살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돌아오라고 권했고, 칼빈은 돌아갔고, 그는 제네바의 시민이 되었고 제네바에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빈을 제네바의 정치인으로 보지 마세요. 그는 제네바에서 정치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기본적으로 그의 설교 사역과 그의 저술과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제네바 사람들에게 성경과 종교 개혁의 신학적 원리에 따라 그들의 삶을 통치하도록 설득하려고 시도했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위를 가졌지만 정치적 권위는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위는 성경 신학자로서, 설교자로서, 교사로서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제네바에서 가진 권위였습니다. 그는 거의 설교했고, 매일 설교했고, 마을 사람들은 와서 칼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제네바에서 죽었고 제네바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제네바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잠깐만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질문이 있나요?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칼빈, 1509년에서 1564년, 저는 직접 찾아봐야겠어요, 1564년. 1509년에서 1564년.

그리고 그는 제네바에서 죽었고, 무덤에 표시가 없는 곳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일종의 찬양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에 표시가 없는 곳에 묻혔습니다.

지금까지 켈빈에 대한 다른 이야기. 좋아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당신은 글을 쓰고 클릭하며 모든 것을 해왔고, 가끔은 5초 휴식을 주고, 금요일에는 10초 휴식을 줍니다 .

금요일이니까 이걸 기뻐하세요. 그냥, 이게 녹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테드, 저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휴식과 스트레칭을 주고, 필요하다면 약간은 충돌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걸 가능해요. 알았어요.

좋습니다. 제네바에 대한 한 가지 더: 그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해 몇 가지 말하고 싶고, 그의 교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교리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네바에 대한 한 가지 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당시에 Michael Servaitis 라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있었고, Michael Servaitis 의 날짜가 있습니다 .

그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1511년경입니다. Michael Servaitis는 기본적으로 유니테리언이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고, 제네바에 와서 제네바에서 화형당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존 칼빈을 보세요. 존 칼빈은 어떤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화형시켰을까요? 잠깐만요, 칼빈. 왜 그런 짓을 했나요? 우리는 이것을 가능한 한 완벽하게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화형은 존 칼빈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세르바이티스가 제네바에 와서 화형당했을 때, 그것은 존 칼빈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존

칼빈은 삼위일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와 논쟁할 의향이 있었지만, 세르바이티스가 제네바에 오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세르바이티스가 제네바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지 마. 너 자신에게 이런 짓 하지 마. 그리고 Servaitis는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제네바에 갈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과 공개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 토론할 거야.

Servaitis를 화형에 처한 것은 시의회였습니다 . 그것은 Calvin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의회였습니다. 사실, 칼빈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를 방문했습니다. 칼빈은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것은 존 칼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칼빈이 누군가를 화형시켰다는 이야기에서 믿음을 옹호할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르바이티스가 제네바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그게 세르바이티스 의 화형 이야기입니다 .

그는 도덕적 권위와 도덕적 영향력만 가졌을 뿐, 그 나라의 법률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시의회에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 지적이에요, 제시.

중세 세계에서 사람들이 화형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세 세계에서 이단자들이 화형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Servaitis 가 이단자로 간주되면 그를 화형시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의 신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 추측하고 싶습니까? 왜 사람들을 화형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단자들이 사회적 무질서를 조장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회에 무질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Servaitis 처럼 화형을 당한 것은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들은 사람들을 모두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모든 것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제네바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화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올바른 신학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의회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제네바에 있었고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좋아요. 그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어차피 당신이 읽고 있는 책에서 그의 삶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아마 4~5명을 골라서 전기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그 신학에서 일어나는 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좋아요. 글썄요, 몇 분만 B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칼빈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칼빈은 어떤 일을 하려고 자신을 바쳤을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신학이다. 좋다. 몇 가지.

첫째, 칼빈은 종교 개혁에서 위대한 중재자였습니다. 칼빈은 종교 개혁에서 양극 사이에 섰던 사람이었고, 종교 개혁 지도자들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매우 훌륭한 중재자 역할을 했고, 칼빈이 주님의 만찬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학을 다룰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만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글썄요, 칼빈은

여기서 두 극단 사이의 중간 지점을 취하려고 노력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존 칼빈에 대한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하지만, 존 칼빈이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의미에서 더 어울리는 종류의 종교 개혁을 건설한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좋아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칼빈은 정말 언덕 위에 일종의 신의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보스턴에 왔을 때 그 용어를 사용했지만, 칼빈은 종교 개혁의 모범이 될 언덕 위에 신의 도시를 짓고 싶어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삶과 사상의 모범이 되는 도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네바가 그 도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제네바가 그 장소, 이 장소, 이 신의 도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언급했듯이 신권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네바에서 정치적 권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덕적 권력이 있었지만 정치적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권정치가 아니었지만, 눈에 보이는 종류의 신의 도시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그가 한 일은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것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사람들이 제네바에 와서 존 칼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학에 대해 토론하고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기들의 장소로 돌아가서 그 좋은 성경 신학이나 체계 신학 등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서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와서 존 칼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네바가 무엇이어서 하는지, 언덕 위의 신의 도시로서의 모델, 등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제네바 아카데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좋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칼빈은, 그리고 저는 이 단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학, 종교 개혁 신학의 위대한 체계화자였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 신학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체계화자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세 스콜라주의와 너무 비슷하고,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은 신학의 아주 미묘한 점들에 대해 논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싫어하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나는 그 단어를 좋아한다. 그는 체계화 자였다. 어쩌면 조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는 신학의 뛰어난 조직자였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는 루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루터는 체계화 자도 조직자도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든, 그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게 설교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루터와 관련된 일은 그의 삶 전반에 걸친 주요 요점과 그가 가르친 내용을 찾아서 그에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뛰어난 조직자이자 체계화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 개혁에 대한 진정한 기여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칼빈이 종교 개혁을 위한 게임에서 한 일. 칼빈은 신학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조직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칼빈이 신학을 하는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말하고 싶다면 신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 원칙들을 실천한다면, 당신은 성경과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기를 바라시는 것에 충실할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하나만 언급하고, 월요일에 돌아올 때 몇 가지 더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자기 지식, 신에 대한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의 원리입니다.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올리기에 좋은 글입니다. 여기에 신을 넣고, 여기에 우리를 넣겠습니다. 칼빈은 방법론적으로 신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지혜는 신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되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래서 기관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지혜, 즉 신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신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식이 먼저 오는가? 정말 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을 먼저 알고, 신을 먼저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아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에 대한 좋은 지식이 있고, 우리 자신을 알면서 신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가? 어느 쪽인가? 글썄요, 칼빈에게는 완벽한 순환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돌고 돌고 돌고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에게 있어서 방법론적으로는 그가 그의 기관을 시작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는 자동적으로 다른 하나로 이어지고, 그것은 삶 속에서 계속되는 놀라운 순환입니다.

이제, 제가 다양한 과정에서 이것에 대해 강의할 때마다, 특히 핵심 기독교 신학 과정에서는, 이것은 반문화적 메시지입니다. 왜 반문화적

메시지일까요? 반문화적 메시지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선을 넘었을까요? 아마 넘었을 겁니다.

왜 반문화적 메시지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글썄요, 그건 칼빈에게 문제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즉 당신을 창조한 분에 대해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맥락에 두지 않으면 심각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으로부터 바로 반문화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가 발전시킨 것은 신학에 접근해야 하는 몇 가지 조직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그것이 연구소가 시작된 방식이지만, 매우 중요한 조직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려면 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 순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은 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좋아요. 여기서 몇 가지 공지 사항으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것은 로저 그린 박사의 교회사 과정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의 수업입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에서 존 칼빈까지의 세션 4(세션 3은 누락됨

)입니다.